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</h1>	2016. 3. 29 (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과장 최호천 / 사무관 김혜경 (Tel. 044-200-2551 / 2552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이원화된 어린이집·유치원 관리 감독 ‘연내 교육부로 통합’ 기사 관련

- 매일경제, '16.3.30자 가판, 1면 및 16면 -

□ 주요 보도내용

- 연내 어린이집·유치원 관리감독을 교육부로 통합
 - 총리실 초안 5월에 최종발표, 교육부 이관 잠정 결론
 - 가정양육수당 업무도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
 - 0-2세 보육예산은 국고지원방식 유지 검토
 - 통합 교사자격·평가체계 마련, 기존 교사 자격 전환 기회 제공 등

□ 보도 해명

- ❖ 관리부처 통합 등은 현재 방안 마련 중으로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며,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부처간 협의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에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① 연내 교육부로 관리부처 통합, 5월 발표 관련

⇒ 관리부처 통합은 향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, 5월 발표는 사실이 아님

② 추진단은 교육부로 일원화 잠정결론 관련

⇒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 없음

③ 가정양육수당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 관련

⇒ 가정양육수당은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, 현재 확정된 바 없음

④ 0-2세 보육예산은 교육부로 이관, 국고지원방식 유지 관련

⇒ 재원 정비는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, 교육부 통합을 전제로 한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
⑤ 교사 자격체계 및 처우개선 관련

⇒ 교사 자격체계 등은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으로, 현재 확정된 바 없음